

요약

강남 테헤란밸리의 창업생태계 강점 살려 판교테크노밸리와 협력할 정책수단 개발

서울시 IT서비스·게임산업 대표기업 판교테크노밸리 이전 본격화

최근 서울시의 주요 산업 중 하나였던 IT(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서비스산업과 게임산업이 본격적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다. 특히 게임산업 상위 10개 기업 중 총 7개 기업이 판교테크노밸리로 이전하면서 서울시의 게임산업 및 IT서비스 산업환경 약화에 대한 우려가 표면화되었다.

특히 기존 서울시 IT서비스 클러스터에서 사업체 및 종사자 유출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IT서비스기업은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수도권 내 신규 IT클러스터를 주요 입지로 삼아 이전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서울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수도권 IT서비스·게임산업은 강남·서초·금천·구로·분당구에 집적

수도권 IT서비스와 게임산업은 서울시의 전통적인 IT서비스산업 클러스터인 테헤란밸리가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가 입지한 금천·구로구,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가 자리한 성남시 분당구 지역의 집적이 두드러졌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최근 분당구는 사업체 수 기준으로 서울시 주요 IT클러스터 사업체 수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또한 분당구는 종사자 규모로 보면 수도권 내에서 강남구에 이어 제2의 IT서비스와 게임산업 집적지로 나타났으며, 분석기간 내 종사자 수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사업체 수 순위에 비해 종사자 수 순위가 높다는 사실은 분당구에는 서울시에 비해 규모가 큰 사업체가 입지해 있음을 시사한다. 분당구가 판교테크노밸리가 조성되기 전부터 수도권 IT서비스 산업의 주요 입지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면 이러한 현황은 보기보다 새로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G밸리는 서울시 IT서비스·게임산업 3개 집적지 중 최대 규모

서울시 내에서 IT서비스와 게임산업의 규모가 가장 큰 클러스터는 G밸리이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로 본 기업규모는 세 집적지(테헤란밸리, G밸리, 판교테크노밸리) 중 가장 적게 나타나 1~9인 규모의 사업장이 과반을 차지하는 소기업 집적지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였다. 하지만 G밸리의 창업률은 타 집적지에 비해 낮아 산업의 활력도는 다소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 다만 신생 스타트업 단계를 지난 벤처기업의 분포는 세 클러스터 중 가장 높은 입지 비중을 보여 창업보다 중소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지역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테헤란밸리는 스타트업 기업 위한 창업생태계 형성돼 창업을 최고

테헤란로 인근, 일명 테헤란밸리는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과 대기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1~9인의 소규모 기업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기업규모는 2013년 22여명에 달해 G밸리보다 큰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테헤란밸리는 본사가 입지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통계분석 결과도 이에 부합한다.

지역 내 창업률은 최근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은 있지만 세 지역(테헤란밸리, G밸리, 판교테크노밸리) 중 가장 높다. 창업률이 높은 이유는 2000년대 이후 테헤란밸리에 있던 국내 굴지의 IT서비스와 게임산업 기업이 이전한 공간에 창업투자사, 액셀러레이터¹⁾, 창업공간 등이 들어서면서 스타트업 창업생태계가 형성된 덕이 크다. 국내외 민간창업지원시설 및 벤처기업 지원시설이 계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테헤란밸리의 창업생태계는 더욱 강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 성공한 벤처인이 자신의 성공 노하우, 투자재원을 활용하여 스타트업을 발굴·투자하고,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실전 창업교육과 전문 멘토링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민간 전문기관 또는 기업(김선우, 2015)

판교테크노밸리, 상위 10개사 중 7곳 위치한 한국게임산업의 메카

판교테크노밸리는 게임·응용소프트웨어, 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업종이 집결된 지역으로 2014년 기준 870여 개의 기업 및 기관에 약 6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국내 상위 10대 게임업체 중 7개, 전국 반도체 팹리스 147개 업체 중 성남시에 53개, 판교테크노밸리만 18개가 입주하는 등 주요 IT서비스와 게임산업의 집적지역으로 한국 IT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주요 대규모 기업의 입주 덕에 판교테크노밸리의 평균 종사자 수 규모는 최근 일부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70명 이상으로 여타 IT클러스터를 상당히 상회한다.

판교테크노밸리에서는 민·관이 함께 주도하는 입주사들 간 네트워킹 문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판교테크노밸리포럼’과 같은 입주기업 간 협의체의 활동을 통해 정보교류를 유도하였으며, 판교 내 공공지원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부주관 창업지원 활동이 활발했다. 또한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지한 대기업들이 소규모 창업지원·교육·투자 문화를 주도함으로써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공고하게 유지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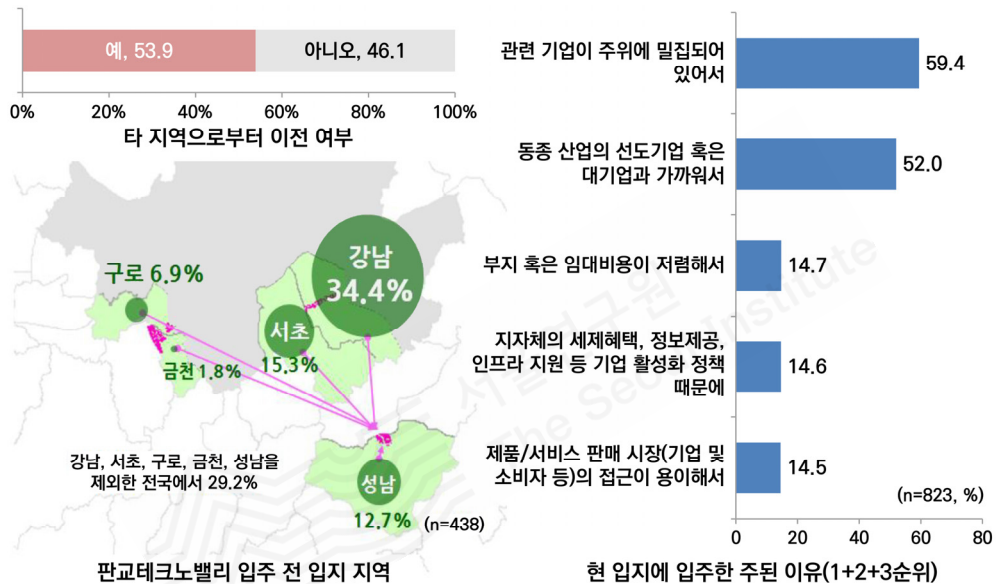
판교테크노밸리가 공공이 주도한 성공적인 클러스터 형성사례로 평가받는 원인으로는 IT서비스와 게임산업의 성장단계와 클러스터 부지공급이 시기적으로 잘 맞았던 것이 가장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판교테크노밸리가 조성되던 2006년경은 규모가 커진 IT서비스와 게임산업의 사옥 부지 수요가 증가하던 시기였으며, 지역적으로도 이 지역은 당시 주요 집적지이던 강남과 가까운 입지라는 매력이 있었다. 주요 선도업체가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지하고 이는 순차적으로 IT서비스와 게임산업의 특수한 업계문화의 이해 및 동종 업종의 집적으로 이어져 중소 IT서비스와 게임산업 사업체까지 유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이유는 관련기업 밀집·선도기업 입지 때문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요 입지요인은 관련기업의 밀집과 동종산업의 선도기업/대기업의 입지로 나타났다. 흔히 판교테크노밸리의 장점이라고 지적되는 저렴한 부지 혹은 임대비용, 혹은 지자체의 기업 활성화 정책 요인은 이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 단계에서 이 지역의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집적효과에 대한 기대가 입지요인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시사한다.

판교 입주업체·종사자 모두 만족도 높고 업체 대부분 이전계획 없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업체의 53.9%는 타 지역으로부터 이전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전입주업체의 이전 전 지역은 강남(34.4%), 서초(15.3%) 등 강남·서초에서의 이전비중이 가장 높아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성남 내부에서의 이전도 12.7%에 달했다. G밸리 지역인 구로와 금천에서 이전해 온 비중은 각각 6.9%, 1.8%로 나타났다.



[그림 1] 타 지역으로부터 이전 여부, 입주 전 입지지역 및 현 입지에 입주한 주된 이유(1+2+3순위) 상위 5개

부족한 편의시설, 도로/주차시설, 공원/녹지시설 등에 대한 불만이 일부 있었지만 판교테크노밸리 입지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사업체가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서울시 내 대표 IT클러스터인 G밸리나 테헤란밸리를 판교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설문에서 나타났다.

서울시, 판교테크노밸리와 협력할 수 있는 정책방향 채택이 합리적

서울시의 공간 및 산업정책으로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산업단지를 형성하는 것은 지리적·경제적 조건이 모두 여의치 못하다. 때문에 별도의 유사 클러스터 정책보다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현재 서울시의 주요 IT클러스터와 협력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채택하는 것이 서울시의 효과적인 정책이라 하겠다.

서울시 게임산업과 판교테크노밸리의 관계는 2000년대 중반 파주 출판단지 사례와 유사하게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파주와 판교의 사례는 서울시 인근 전문단지 설립으로 인한 특정업종 기업의 대규모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당시에 도 서울시 출판산업의 고사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 서울시 출판사 수는 이후 오히려 증가하였다. 차이점이라면 이후 출판산업의 중심성이 충무로 인쇄-출판 집적지에서 홍대 출판 집적지로 이전하면서 결과적으로 출판산업의 가치사슬이 파주-홍대로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즉, 산업의 쇠퇴가 아닌 공간적 재구성 및 분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전망이 유효하다면 서울시는 테헤란밸리-판교테크노밸리 회랑 구상과 같이 강남 테헤란밸리에 형성된 창업생태계의 강점을 살려 판교테크노밸리와 협력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현재 테헤란밸리의 고유한 장점이나 특화 기능인 창업 및 스타트업 보육 기능을 판교테크노밸리와 공유하는 한편 테헤란밸리의 창업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민간 공동의 창업지원 거점을 마련하고 현재 성숙해가고 있는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 민간 네트워크와의 협력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G밸리는 제조업을 수반하는 IT기업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이다. 사물인터넷 등 융합산업 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 부흥책 마련이 현재의 장점을 살리는 발전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다소 부진한 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고 노후한 산업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